

사천N

SACHEON MAGAZINE

2021. 2월 (통권298호)



파라는 겨울친구-이순영



送舊迎新 송구영신 庚은

古菴 朴基大

晉諾燈臺迎顯明 진널등대영현명
 진널 등대에서 일출을 맞이하는데
 人稀元旦豈當驚 인희원단기당경
 사람 드문 새해여도 놀랍지 않네.
 新冠猖獗妨相見 신관창궐방상견
 코로나19 창궐이 대면을 막았으니
 舊歲多難焦互情 구세다난초호정
 지난해 어려움은 서로의 정을 애태웠네.
 街道如前期活氣 가도여전기활기
 거리는 전과 같이 활기를 찾고
 文娛復興待同行 문오부흥대동행
 문화 활동 부흥하여 동행을 기대하네.
 牛鳴所望加唯二 우명소망가유이
 소 울음 소망에 두 가지를 더하니
 普衆健康聽誕聲 보중건강청탄성
 모두의 건강과 탄생 울음 듣는 일이네.



古菴 朴基大

사천향교인성교육원장
 구암한시협회 사무국장
 사남, 수양, 남양초등학교장(역임)
 경남교육청 정책담당장학관(역임)





CONTENTS

VISION

04

- 04 특집 - 고려 현종 대왕축제
- 사천 풋마늘
- 08 시정소식 - 읍면동 소식
- 09 의회소식 - 의정활동 - 5분 자유발언

STORY

10

- 10 사람&단체 - 김위숙 삼천모여성 팔각회 前 회장
- 한충기 국가문화재 대한민국 탈춤연합회 사무총장
- 14 마시뜨라 - 서포시장 맛집 투어
- 16 사천의 명소 -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해안둘레길
- 18 소개합니다 - 제6기 사천시 sns서포터즈
- 2021년 사천시 명예시민
- 사천시 시민상 / 홍민희 부시장
- 22 기획 - 사천시시설관리공단, 2021년 핵심 과제는?
- 24 연재코너 - 걷고 싶은 사천의 길: 고려현종 부자상봉길
- 어때요? 항공산업 28탄
- 서부노인복지회관 언제 완공되나
- 길이름따라 떠나는 사천이야기: 무고길
- 사천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봉수상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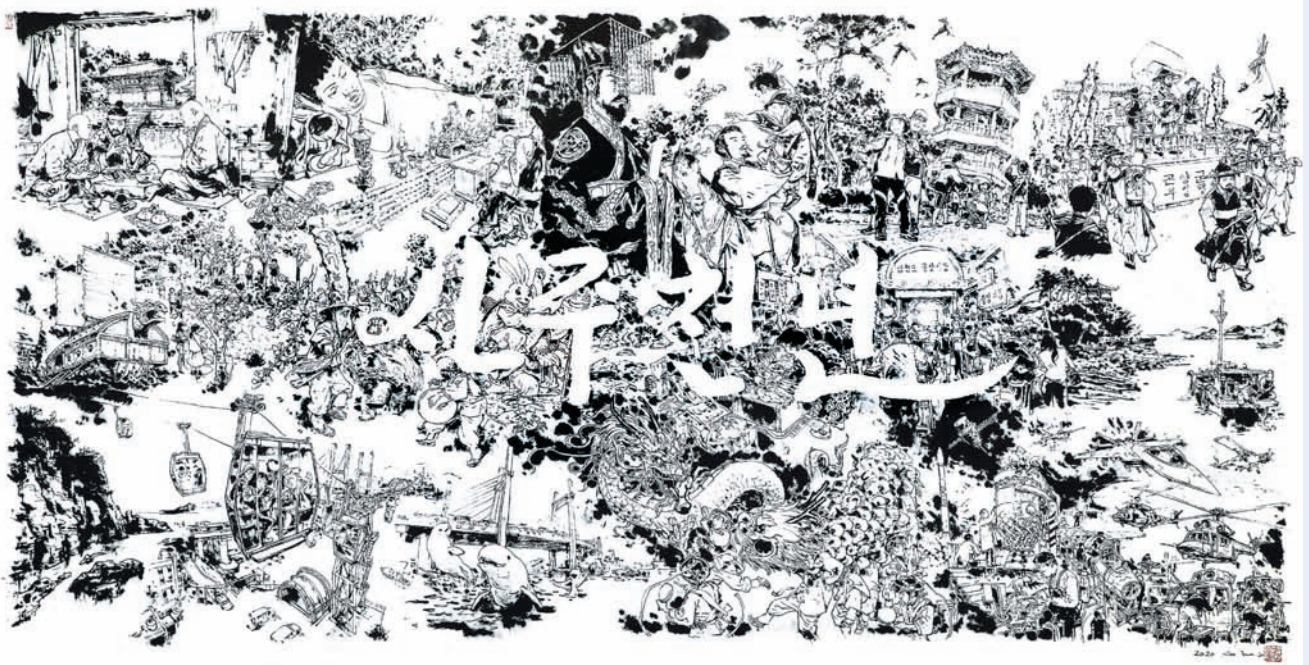
WITH

31

- 31 문화생활정보 - 시정 알림마당
- 34 건강 - 위궤양이 위암을 부른다?
- 35 독자마당 - '생명존중' 필요합니다.
- 36 소중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고려 현종 대왕축제’

사천의 대표 축제로 새롭게 출발!



김정기 <사주 천년의 역사>, 종이에 붓펜, 2020

‘풍패지향’ 사천, 고려 현종으로 특화

올해부터 사천 ‘와룡문화제’가 새 이름 ‘고려 현종 대왕축제’로 출발한다. 사주천년, 배방사지, 부자 상봉길 등 고려 현종과 사천의 높은 지역성과 역사성을 감안해 이름을 바꾼 것이다. 고려 현종 대왕축제는 2021 사천에어쇼와 동시 개최되며 기간은 202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이다.

앞서 총 24회 개최된 와룡문화제는 1995년 사천시 출범과 함께 삼천포시 한려문화제와 사천군의 수양문화제를 통합해 와룡산 지명을 내세워 운영해 왔다. 사천시 대표 축제로서 시민화합과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발표장으로서 기능은 가능하였으나 확장 가능성에 대한 아쉬움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사천문화재단은 2020년 4월 예정이던 제25회 와룡문화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취소되자 이를 계기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 기회를 삼고자 지난해 6월 ‘와룡문화제 진단과 축제 대표 콘텐츠를 개발 용역’을 시행했다. 용역 결과 ‘고려 현종 대왕축제 추진’이 도출되었다.

고려 현종 대왕축제 추진 이유는 △고려 현종과 사천의 높은 지역성과 역사성(사주천년, 부자상봉길, 고자봉, 배방사 등) △지역 내 스토리텔링과 결합한 매력적인 축제 콘텐츠 생산 가능(현종, 팔관회, 연등회, 초조대장경, 퍼레이드 등) △사천의 역사 재조명 △현종의 업적과 지역사 연구 및 고증 등을 배경으로 한다. 또한 고려 시대 현종 대왕이란 명확한 주제로

로 '사천시만의 독보적인 콘텐츠 개발'도 가능하다. 사천문화재단은 현종과 축제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 △'현종 만화' 제작 △'고려 현종과 사천 책자' 제작을 진행 중이다. 함께 △'사천과 현종 인문학 강좌 및 세미나' 개최 △'고려 현종 대왕축제' 전국 축제 포스터 공모전을 통해 축제 사전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년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사천에어쇼'와 동시 개최해

2021년 처음 개최되는 '고려 현종 대왕축제'는 'Back to the KOREA(고려)'를 컨셉으로 고려 시대와 현종 콘텐츠를 특화하여 추진된다. 축제는 10월 28일부터 31일까지 사천에어쇼와 동시에 개최될 예정이며, 기간은 3일에서 4일로 늘었다.

대표 프로그램으로는 현종의 업적인 팔관회(백희가무, 임금행렬) 및 연등회(시민이 함께하는 사주 천년의 등燈 퍼레이드, 천년의 등 전시, 대동놀이), 초조대장경 이운 행렬, 전국 거리 퍼레이드 경연대회, 문화 퍼레이드, 드론 라이트 쇼, 제례 봉행이 있다. 주제프로그램으로는 현종 주제공연, 현종 일대기 존과 주제관, 고려 촌 저잣거리 존, 고려 복식 패션쇼 및 세미나, 현종과 찰칵! 사진 콘테스트 프로그램 등이 진행된다.

특히 배방사·고자봉 순례 투어, 사천문화 역사 골든벨 등 시민과 관광객들이 사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할 수 있는 참여프로그램과 가족·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서커스, 놀이동산, 마임, 버스킹, 고려 복식 체험, 초조대장경 관람 및 탁본체험, 고려 책자 만들기, 청자, 연등 만들기 등 고려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이 준비된다.

현종은 고려 제8대 왕으로 사수현(現, 사천)으로 유배 온 아버지 왕욱(안종)을 따라 유년기 한 때를 배방사라는 절에서 보냈으며, 왕으로 즉위 후 사수현을 왕의 고향, 즉 풍패지향(豊沛之鄉)이자 아버지를

2021년 연재 주제

구분	주 제
2월	'고려 현종 대왕축제' 새롭게 출발!
3월	'고려 현종 대왕축제'의 포스터 공모 및 선정작
4월	사천아카데미 취재(2월) -고려 현종과 사천(대전대학교 김갑동 교수)
5월	고려 현종과 사천 -현종의 업적 ① 사회·정치
6월	고려 현종과 사천 -현종의 업적 ② 문화·종교
7월	고려 현종과 사천 -현종의 업적 ③ 역사
8월	고려 현종과 사천 -현종의 업적 ④ 국방·외교
9월	'고려 현종 대왕축제'는 어떻게 개최되는가 ①
10월	'고려 현종 대왕축제'는 어떻게 개최되는가 ②
11월	'고려 현종 대왕축제' 준비 현장 소개
12월	축제 개최 결과



(좌)와룡문화제 행사 전경 / (우)고려현종-부자상봉의 길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땅이라 하여 사주(泗州)로 승격(昇格)시키는 파격적인 결정이 있었다. 현종은 사천과의 관계뿐 아니라 지방 행정 구역 및 제도 정비, 국가의 안녕과 시민의 화합을 위해 팔관회/연등회 부활, 초조대장경 제작, 고려 실록 재편찬, 나성 축조, 흥화진 전투 및 강감찬의 귀주대첩 승리 등 고려 시대 외교, 정치, 사회, 문화, 국방 등 많은 영역에서 최고의 성과를 거두며, 고려의 체제를 완비하고 국가의 위상을 자리 잡게 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사천시의 독보적인 브랜드로 '고려 현종 대왕축제'를 새롭게 개발하고자 한다"며 "축제는 과거와 현재, 미래를 연결해 지역의 문화 정체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앞으로 성장을 지켜봐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천 풋마늘로 겨울철 얼어붙은 몸을 깨우자

사천 풋마늘 출하시작, 건강식품으로 ‘호평’



사천의 대표 농작물로서 봄철 대표 채소로 자리잡은 ‘사천 풋마늘’이 첫 출하를 시작으로 전국 미식가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나섰다. 매서운 추위에도 지난해에 비해 1주일 이상 출하를 앞당긴 사천 풋마늘이 첫 출하를 시작으로 오는 4월까지 농협과 농산물 유통 업체 등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된다.





사천 풋마늘은 사천에서 150여 년을 내려오는 재래종으로 뿌리 부분이 희고 길며 줄기는 붉은색이 선명하게 나타나면서 조직이 부드럽고 매운 맛이 강하지 않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풋마늘에 함유된 비타민과 칼슘 등 미네랄 성분은 피로를 해소시켜 주고, 매운맛을 내는 알리신 성분은 강력한 살균항균 작용을 해 각종 성인병 예방과 항암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혈액 내 생성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 혈액순환을 도우며, 고혈압, 심근경색 등 심혈관계 질환도 예방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신진대사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충분하게 들어 있어 봄철 직장인, 학생 등 현대인들이 흔하게 겪고 있는 춘곤증 예방에도 탁월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면역력을 높여주는 동시에 혈당을 떨어뜨려 당뇨병 예방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에 예민한 현대인이 즐겨 찾는 건강식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천풋마늘은 버릴 것이 하나도 없다. 잎과 줄기만 먹는 일반 풋마늘과는 달리 뿌리째 먹을 수 있기 때

문이다. 줄기 부분은 무침, 장아찌, 볶음 등으로 먹고 뿌리는 튀김, 초고추장 무침, 육수를 우려내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샐러드로 곁들여 먹어도 좋지만, 특유의 알싸하고 아삭한 식감을 갖고 있는 사천풋마늘을 고기와 함께 먹으면 금상첨화다.

풋마늘을 고를 때는 붉은색이 선명하며 뿌리와 줄기 잎이 동그랗고 두꺼우며 줄기가 너무 굵지 않은 것을 골라야 식감이 부드러운 풋마늘을 먹을 수 있다. 큰 것보다 30cm 내외로 작은 것을 사야 질경거리는 ‘씹힘현상’ 없이 풋마늘을 제대로 즐길 수 있다.

사천풋마늘은 150년 전통의 역사를 가진 사천시의 대표 농산물로 지리적 표시제 제72호(등록일자:2010.11.08.)로 등록돼 고유 명칭 보호를 받고 있다.

사천시풋마늘영농조합법인(대표 김동곤)을 중심으로 120여 농가가 재배하고 있으며 남양동 일대 10ha에서 170톤을 생산해 800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에 시는 지난 2020년 마늘자동세척기 지원으로 풋마늘의 위생적인 판매를 돕고 있으며, 삼천포 농협, 사천풋마늘영농조합법인과 함께 사천풋마늘의 명성과 우수성을 이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SACHEON NEWS

읍면동 소식

가축전염병 차단 위한 무허가 축산농장 점검 강화



사천시가 가축전염병 차단을 위해 무허가 농장에 대한 현장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올해말까지 새울시스템, 국가방역통합관리 시스템 등에서 관련 정보에 대한 교차확인을 통해 무허가로 축산업을 하는 농가를 찾아내 축산법에 따라 벌칙, 과태료 등 엄격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실시



사천시보건소가 1월 13일 시청 2층 중회의실에서 보건소 건강증진 사업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건강증진사업과 관련한 사업추진 방향 등을 고민하고 사업기획 및 실행 등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논의했다.

겨울철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사천시가 동절기 대형 산불발생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겨울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녹지공원과 직원 23명으로 구성된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면서 법정 산불조심기간 외에도 산불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고병원 조류인플루엔자(AI)와 전쟁



사천시가 전국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송도군 사천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12개반 14명으로 구성하고 상황 종료시까지 24시간 비상체제에 돌입하는 등 AI 조기 종식을 위한 총력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2억5000만 원 예산 절감



사천시가 '2021년 소규모 건설사업 합동설계단' 운영으로 2억5000만 원의 설계비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합동설계단은 올해 건설사업 중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 52건 등 109건 총 사업비 28억여 원의 사업에 대해 자체설계를 완료했다.

토마토 신품종 '토마토4000' 출하 시작



사천시가 사천지역의 농촌환경에 적합한 '토마토4000'을 성공적으로 개발, 출시했다. 8일 첫 출하를 시작한 '토마토4000'은 농업기술센터 과학영농 실증시험포에서 진행된 시험재배에서 경도, 수량성, 과중, 착색 등에서 생산자와 구매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으로 호평을 받았다.

SACHEON NEWS

의회 소식

사천시의회 250회 임시회 - 5분자유발언(발표 순)

**전재석 의원(국민의힘, 동서금·벌용·향촌)**

사천시 와룡동 일원에 1997년 이금동-와룡임도 개설을 시작으로 2020년 용강-와룡임도까지 총 9.55km 설치를 통해 용강동, 와룡동, 이금동에 걸친 임도망을 구축했습니다. 접근이 용이한 임도시설 설치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운동 및 휴양시설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소득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도는 산림관리 기반시설로 확충됨으로써 목재와 산림 부산물 생산 등 산림의 집약적·효율적 관리를 유도하여 새로운 소득기회 창출은 물론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를 비롯한 일반재해에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시설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아직까지 임도와 병행된 산책길에 더불어 시민들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부대시설 즉, 벤치 등의 시설이 보완된다면 더 한층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소의 임도가 될 것이며 용두공원과 연계된 힐링의 장소로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사천시 관련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드립니다.

**김경숙 의원(국민의힘, 동서금·벌용·향촌)**

생태공원으로서의 기반시설이 잘 조성되어 있는 와룡산 용두공원에 공연·전시·체험·놀이 등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요소를 개발할 것을 제안합니다. 용두공원 상단부인 와룡저수지의 지리적 환경과 가치를 살려 수변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를 가설하게 되면 주변에 조성된 둘레길과 어우러져 특색있는 관광명소가 될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4계절 가족단위로 즐겨 찾는 용두공원은 초등학교는 물론 어린이들의 자연생태 학습장으로도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용두공원에 우리 사천의 자연을 공부하고 체험하며 새로운 지식을 쌓는 남녀노소가 이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숲과 물, 자연이 어우러진 용두공원에 교육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용두공원에 화룡점정을 찍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와룡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용두공원 출렁다리' 조성과 가족단위 탐방객을 위한 '숲속 다목적 작은 도서관' 건립 등 용두공원 명소화 사업이 실현되기를 제안합니다.

**김형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어떤 제도와 정책도 그렇겠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도 오류와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택시 기사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도 개인택시의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반면 법인택시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소득안정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50만 원을 지급 받게 됩니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모두가 승객감소로 인한 운송수입금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지원금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사천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법인택시 기사 분들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차별을 해소하였듯이 이번에도 법인택시와 전세버스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정화 의원(국민의힘, 사천읍·정동·사남·용현)**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적교류가 크게 줄어들면서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온 택시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개인택시와의 차별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 2차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100만 원이 지원되고 법인택시는 50만 원 지급이 결정됐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평소 개인택시보다 실질적인 소득이 열악한데다 코로나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차별은 안 된다며 개인택시와 똑같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의 고충과 특히 코로나 장기화 및 재확산, 그리고 광역환승제 시행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택시산업 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형식의 지원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애 의원(무소속, 사천읍·정동·사남·용현)**

대면접촉이 밀접한 택시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철저한 방역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택시 안에서 3분 만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사와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말 차단막 설치 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 택시 관련 세부 생활수칙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소독제 비치,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말 차단막을 설치하게 된다면 기사와 승객 간의 서로 접촉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택시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비말 차단막 설치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재정 지원 방법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를 건의드립니다. 그리고,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 운영을 제안합니다. '아이맘택시'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병원 방문 시 전용 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사천시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동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가정의 이동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속한 아이맘택시 운영을 제안합니다.

“돌아보았을 때 참 열심히 살았구나! 생각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우연한 기회로 시작된 봉사가 어느 날 돌아보니 20년이 훌쩍 넘어 있었다고 수줍게 웃는 그녀는 봉사이기보다는 나누는 마음이 일상이 되었다고 말했다. 차가운 겨울 바닷바람이 옷 속을 파고드는 날 햇살처럼 짙한 마음을 가진 그녀를 만나 나눔으로 함께하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다.

김위숙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 경남지구
삼천포여성 팔각회 前 회장



삼천포여성 팔각회란 어떤 곳인가요?

사단법인 대한민국 팔각회는 1966년 창립하여 ‘평화통일·자유수호·사회봉사’라는 신조를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발전을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습니다. 사천에는 사천 팔각회, 사천여성 팔각

회, 삼천포와룡 팔각회, 삼천포여성 팔각회가 있고, 그 중 삼천포여성 팔각회는 1991년 창립되어 2021년 현재 2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기꺼이 함께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주관해 온 민간 사회 봉사단체입니다.

봉사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25년전, 지인의 소개로 새마을회에 가입하게 되어 봉사활동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남들보다 적극적으로 임하다보니 여러 사람들의 부름을 받게 되었고 팔각회까지 가입하게 되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서 꾸준히 봉사활동을 하는 생활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게 되었네요.

팔각회 활동은 언제부터 하셨나요?

입회한지 13년 된 것 같습니다. 새마을회에서 10년 넘게 활동을 하던 어느 날 당시 팔각회 회원이셨던 분이 함께 더 많은 봉사를 해보자고 제안하셔서 입회하게 되었어요. 봉사하는 사람은 어딘가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 거절을 잘 못합니다. 그렇게 팔각회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팔각회 회장으로 2년의 임기를 마치셨는데 기억에 남는 일이나 아쉬운 점이 있다면요?

2019년 제9회로 개최되었던 사천시 삼천포아가씨 가요제가 기억에 남습니다. 팔각회에서 가요제 행사 개최를 도와드렸던 초창기에는 관람객도 많지 않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온 회원들이 고생이 많았는데 이제는 자리를 잡아 지역가수도 배출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되어 너무 뿌듯합니다. 아쉬운 점은 2019년 1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지역행사와 봉사활동이 연기되고 연기되다 취소되는 일이 많았습니다. 모든 분들이 마찬가지로 지이시겠지만 2020년은 참 아쉬운 한해였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회장 임기는 끝났지만 팔각회 회원으로서 차기 회장님을 잘 보필해서 단체에서 하고있는 주 활동인 사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봉사나 기존에 단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여러 활동들을 꾸준히 할 계획입니

다. 그리고 팔각회 회원을 늘려서 함께 더 많은 봉사를 하고 싶어요. 이제 퇴직을 하게 되어 시간이 넉넉해졌으니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다면 힘이 닿는데까지 제 작은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려고 합니다.

봉사를 어려워하는 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요?

봉사를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해 보면 자신에게 가장 보람이 있고 뿌듯한 일임을 느낍니다. 봉사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남을 돕겠다는 작은 마음만으로도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직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길이 필요한 곳들이 많습니다. 조그마한 용기로 내민 당신의 손이 이웃과 지역에 큰 사랑의 물결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사천 가산오광대 전통문화 계승, 발전시켜야

‘한국의 탈춤’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목표

한충기

국가문화재 대한민국 탈춤총연합회 사무총장

한우성 회장의 큰할아버지와 아버지에 이어 4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아들 한충기 국가문화재 대한민국 탈춤총연합회 사무총장. 그는 초등학교 5학년 시절 중요무형문화재 제73호 가산오광대 말뚝이 예능보유자 이자 기능보유자인 故 한윤영, 김오복의 선생님의 가르침 아래 오광대를 전수 받았다. 어린 시절 오광대에 입문해 20년간 탈춤에 한 평생을 받쳐온 한 사무총장의 바람은 오직 한 가지다. 전 세계에 우리나라 탈춤을 알리는데 큰 도움이 될 ‘한국의 탈춤’을 202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는 것이다.

탈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달라

탈춤은 가면극이라 볼 수 있다. 파괴승에 대한 풍자, 상전인과 양반에 대한 모욕, 남녀(부부)간의 갈등, 서민 생활의 곤궁상 등 조선시대 서민들의 애환과 삶이 깃든 해학극이다. 탈춤 이외에도 놀이, 야유(들놀음), 오광대 총 4가지의 유형이 있다.

보선의 해서지방을 중심으로 사회상을 반영한 탈춤에는 봉산, 강령, 해서, 은울 탈춤이 있다. 경기도 양주지방에서 전승된 탈놀이는 서울 송파동에서 전승되어온 '송파산대놀이'가 있다.

야유(들놀음)은 낙동강을 중심으로 그 동쪽지역에서 폭넓게 전승되어 온 탈놀이를 야유라고 하며, 서쪽지역에서 전승된 탈놀이를 '오광대'라고 부른다.

야유는 낙동강 동쪽지역(경상좌도)인 수영, 동래, 부산진(에)에 분포되어 수영야유, 동래야유가 있다. 서쪽지역에서 전승된 오광대는 다섯 광대놀이 또는 다섯마당으로 이뤄진 놀이라고 볼 수 있다. 고성오광대, 통영오광대, 가산오광대가 전승되어 내려오고 있다.

탈춤에 내포된 의미는

탈춤 안에는 천민들의 삶의 애환(哀歡)이 녹아 있다. 탈놀이를 할 때는 양반들의 소작농으로 일하면서 쌓여왔던 울분을 마음껏 분출하고 학대하던 양반들을 조롱해도 처벌받지 않았다.

처음에는 탈춤이 자연의 모방과 농경행위, 성행위 또는 귀신을 격퇴시키는 신앙과 결부된 행위였다. 그러나 점차 풍자적인 춤과 민중들의 의지가 담긴 상징 동작과 민중적 미감으로 발전한 예술적 표현으로 발전해 왔다. 재담과 노래, 몸짓을 포함한 춤 등 가무극적 총체성을 띠고 다른 민속춤에 비해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탈춤제가 사천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사천시가 탈춤이 지니고 있는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이 낮다. 제4회 대한민국 탈춤제의 경우 시민들에게

전통문화를 고취시키고, 전통문화를 알리는데 개최하게 됐다. 대한민국 탈춤제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승되고 있는 각 지역의 지정 무형문화재가 한자리에 모여 공연하는 행사로 우리 시의 가산오광대와 더불어 고성오광대, 통영오광대, 송파산대놀이 등 총 11개 단체, 400여 명의 전승자 참여하여 2박 3일간 최고의 공연을 펼친다.

현재 고민은 무엇인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탈이라는 의미는 문화유산으로 인식되어 있다. 탈춤을 새로운 문화콘텐츠로서 국제사회의 공감을 얻어내기 위한 콘텐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일반인들도 우리나라의 뿌리깊은 전통문화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접할 수 있는 기회와 다양성이 많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는 불투명한 장르로 인식돼 미래를 이어가기 힘든 사항이다. 과거 뿐만 아니라 현재, 미래에도 전통문화를 이어가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앞으로 소망

우선은 대한민국 탈춤을 세계적으로 위상을 드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가산오광대를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록하는 것이다.

문화재청이 지난 9월과 10월 공모로 접수된 유산 9건과 지난 2010년에서 2012년에 걸쳐 제출한 뒤 유네스코 심사를 받지 못하고 계류중이던 23건의 유산 등 총 32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 결과 '한국의 탈춤'을 2020년 신청대상으로, '한국의 전통 장(醬)문화'를 차기(2022년)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현재 세계탈춤문화연맹(아미코)에 2021년 심의를 거쳐 2022년 유네스코 등록을 준비하고 있다. 대한민국 탈춤총연합회 사무총장으로서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



장날! 서포시장으로 떠나는 맛집 투어

1978년에 개설된 상가건물형의 소형시장으로 장날은 매월 4일, 9일이며, 관내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시장입니다. 서포시장은 평일에는 한산하여 문을 연 상가가 거의 없습니다. 여긴 서포시장주변에 맛집들이 있어요. 저와 함께 서포맛집투어 가 보실까요?



송미선

제6기 사천시 SNS서포터즈

용띠네 참숯구이

먼저, '응답하라 1988'에도 나왔었던 사천시 대표음식 '쌈싸먹는 김치찌개' 원조식당인 《용띠네 참숯구이》를 소개합니다.

그 시절에는 '한일식당'이었는데 지금은 '용띠네 참숯구이'로 상호명을 바꿔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겹살, 목살, 김치찌개**가 인기메뉴입니다. 숯불에 구워서 숯불향이 입혀진 고기맛이 끝내줘요. 늘 그렇듯이 삼겹살 먹고나서 김치찌개도 꼭 먹습니다. 김치찌개 고기로도 쌈싸 먹어요. 얼큰하니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는 맛. 원조님께서 만드신 육수맛은 남다른 듯요. 역시 잘 찾아왔어요~~



사천할매 콩나물 국밥집

두번째로 《사천할매 콩나물 국밥집》을 소개합니다. 사천시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콩나물국밥, 계란말이, 직화구이, 육개장, 비빔밥** 등등... 여기는 어른,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메뉴들이 강점입니다. 밀반찬도 푸짐하게 내어주시고 시그니처 메뉴인 계란말이는 사이즈부터 남다릅니다. 콩나물국밥을 주문하시면 수란과 맛김이 나옵니다. 콩나물국밥 국물을 수란에 몇 손가락을 넣고 맛김 넣어서 비벼드시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수란을 국밥에 넣어 드셔도 되고 새우젓, 고추도 넣어 간을 맞춰드셔도 됩니다. 콩나물국밥에 들어있는 콩나물이 아삭하고 파와 오징어가 들어 있어서 국물맛도 시원합니다. 맛있게 한그릇 뚝딱!





용궁해물짜장

세번째로 해물짬뽕과 탕수육이 맛있는 《용궁해물짜장》을 소개합니다. 한번은 오고 싶었던 곳이었어요. 오늘 알바 쉬는 날이라 엄마랑 함께 다녀왔어요. 해물짬뽕을 많이 드신대서 저희도 먹어보았답니다. 일단 양이 엄청 많아요. **국물맛이 칼칼**합니다. 맛있군요. 면은 남겨두고 야채·해물은 다 먹었습니다. 세트메뉴로 탕수육도 함께 시켰어요^^ 달콤짭짤한 소스가 부어져 나옵니다. 여긴 부먹스타일이네요. 근데 탕수육 고기가 왜이리 커요?? 자르지않고 그냥 먹었더니 씹는 맛이 있네요. **고기도 도통**합니다. 엄마 입맛에도 굳♡ 제 입맛에도 굳♡

시골추어탕

네번째 서포맛집♡ 《시골추어탕》입니다. 서포면 입구에 위치하고 있고 넓은 주차장이 있어서 좋아요. 제가 4~5년 전쯤 왔었던 거 같아요. 꽤 오래전이었지만 식탁으로 바뀐 거 말고는 **밀반찬도 정갈하니 느낌 그대로**입니다.

무엇보다 여기는 계란말이와 멸치볶음이 밀반찬으로 나옵니다. 시골추어탕은 들깨가루, 우거지가 들어 있습니다. 산초가루 안넣고 마늘 다진거랑 고추만 조금 넣고 먹었어요. **결죽하고 진한 된장맛**이 나서 좋았고 미꾸라지도 국산만 쓰신다고 합니다. 믿고 드셔도 될 듯 합니다. 요즘같이 추운 계절에는 뜨끈뜨끈한 국물메뉴가 **안성맞춤**이에요^^



바움하우스

마지막으로 풍경 좋은 카페도 소개합니다. 《바움하우스》 사천시에 이런 곳이 있었나? 하고 깜짝 놀란 곳입니다. **커피맛도 괜찮고 무엇보다 바다가 바로 보이는 곳**이라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보니 서쪽바다 멋지네요. 연예인들도 다녀가신 곳이라서 더 놀란 곳이에요.

사천시민들보다 관광객들께서 더 잘 알고계시는 시크릿가든 같은 곳입니다. **벚꽃피는 따뜻한 봄날에 꼭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이에요^^



※ 사천시 SNS서포터즈가 작성한 글이며 사천시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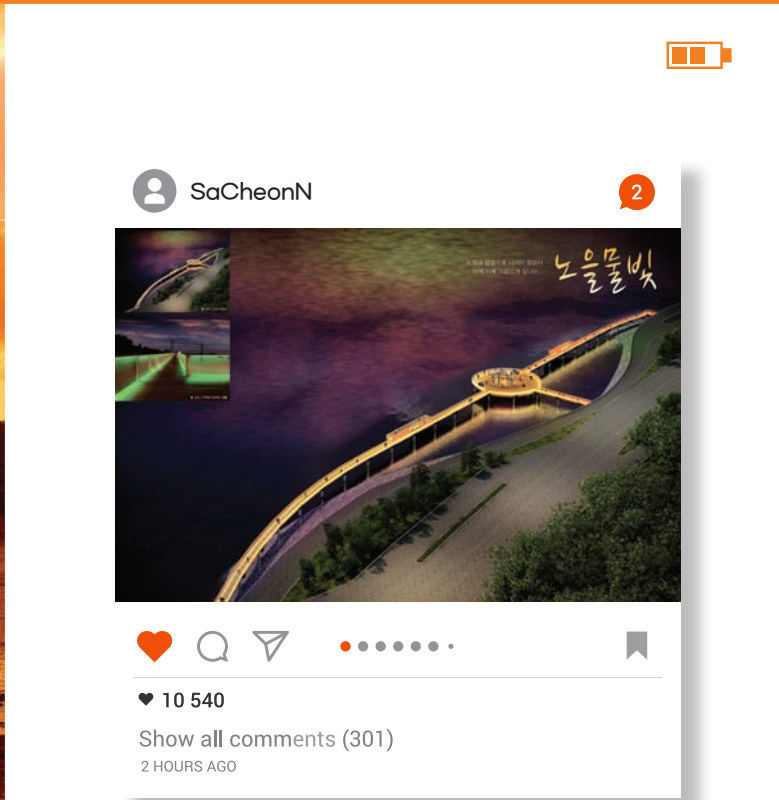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해안둘레길... '인생 샷' 명소로 각광

전국 9대 일몰 중 하나인 사천 실안노을을 한발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제대로 감상할 수 있는 해안둘레길이 조성된다.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이며 오는 4월 중에 완공될 예정이다. 현재 마지막 마무리 단계에 있는 이 곳으로 달려가 보자.





지난 2019년 9월 착공한 실안노을과 어우러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은 3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삼천포대교공원에서 실안관광지까지 해안을 따라 노을전망교 설치, 녹지구간 보도정비, 경관조명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길이 339m, 폭 3m의 노을전망교는 전국 최고의 환상적인 뷰를 자랑하는 실안노을의 진수를 마음껏 누리는 것은 물론 인생 최고의 사진을 찍을 수 있다. 진입광장, 등벤치, 파고라, 포토존(스윙벤치), 디자인벤치, 험프형 횡단보도, 관광안내판 등

시민과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도 다양하게 설치, 해안둘레길을 찾은 시민과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해안둘레길 일대를 화사하게 연출함으로써 조명 숲길을 걷는 듯한 느낌을 선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과 함께 다양한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야간경관 조명 설치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해안둘레길을 주욱 따라 걷다보면 한 번이 아니라 발길이 닿는 곳마다 전국 최고의 뷰~ 맛집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다. 이번 삼천포대교공원과 산분령간 해안둘레길 조성사업으로 다양한 볼거리와 편익을 제공하게 되면서 기존 관광자원의 가치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사천시 제6기 SNS 서포터즈



“사천시의 주요시정과 시책, 축제 및 행사, 문화관광 등 각종 시정홍보활동은 우리에게 맡겨주세요”

2021년 제6기 사천시 SNS서포터즈들의 다짐이다.

이번에 위촉된 제6기 사천시 SNS서포터즈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활동하며, 사천의 숨은 명소와 시민들의 목소리, 축제와 행사 등 다방면으로 사천을 알리는 민간홍보 대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사천지역의 다양한 이야기와 알차고 감동적인 스토리 등을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해 자신의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전파하게 된다. 또, 각종 시정소식과 재난정보, 시민들에게 유용한 정보는 물론 시민불편사항과 행정개선사항을 건의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시정에도 앞장선다.

특히,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과 대학생, 주부, 직장인, 사진작가 등 여러 분야의 활동가들로 구성돼, 각계각층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서포터즈들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서포터즈의 활동실적에 따라 최대 월 15만원의 인센티브(모바일 상품권)를 지급하고, 매월 실적 우수자에게는 추가로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 그리고, 연말에는 2명의 우수 활동자를 선발해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 또, 본인과 동승자 1인에 한해서 사천바다케이블카 1년 무료 탑승혜택을 부여한다. 사천 시티투어버스도 무료로 탑승해 사천의 관광지나 명소에 대한 취재가 가능하다. 사천시 관계자는 “해양관광 거점도시인 사천시가 새로운 관광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SNS를 통한 홍보가 매우 중요하다. 사천의 관광지나 맛집, 드라이브 코스 등을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사천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위촉식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총 20명의 서포터즈들에게 개별 우편으로 명예기자증, 서포터즈 교육자료, 시 홍보자료, 기념품 등을 보냈다.



강외숙



김도숙



김보명



김소영



김종신



김종화



김태균



박영미



배나영



송미선



윤하영



이순영



이용호



이은애



이황준



전수연



최정수



추지연



허재형



황경상

사천시의 자랑스러운 얼굴들 조용국 회장·안병규 대령

(주)코렌스 조용국 회장과 안병규 공군 대령이 사천시 명예 시민이 됐다.

조용국 회장은 2020년 12월 31일 사천시청 대회의실에서 명예시민증서를 받았고, 안병규 공군 대령은 지난해 11월 명예시민증서를 받았다.

조 회장은 사천시 용현면 출신으로, 자동차 부품 생산기업 (주)코렌스 회장을 맡고 있다. 조 회장은 IR52 장영실상을 수상하고 2억불 수출의 탑과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는 등 세계시장 개척과 국가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사천시의 명예를 드높인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모교인 용현초등학교 졸업생 후배들에게 2012년부터 '산학교류 재능기부 협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등 지역사회 인재 육성을 위한 기업 이익의 사회적 환원을 실천했다.

안병규 공군 대령은 공군 제3훈련비행단 기지방호전대장으로 보임하면서 사천시와 공군의 유대강화로 2018·2019 사천에어쇼의 행사 다양화 추진과 성공적 개최에 헌신한 공로를 높이 평가받았다.

안 대령은 실전적 훈련을 바탕으로 사천시 소재 공군 제3훈련비행단의 전투력과 작전지속능력을 향상시키고 최상의 안보태세를 확립시킨 인물로도 정평이 나 있다.



조용국 회장



안병규 대령



제23회 사천시 시민상

사천시가 2020년 12월 3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23회 사천시 시민상' 수여식을 개최했다. 영예의 수상자는 신현권(69), 이용관(62), 서정배(60) 씨 등 3명으로 결정되었다.

시민상은 사천시민의 이름으로 수여하는 시민 최고의 영예로운 상이다.

이날 수여식은 코로나19의 지역확산 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시행으로 모든 행사가 취소됨에 따라 수상자와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문예부문 수상자 신현권(69)씨는 사천향교 인성교육원장을 역임하면서 향토문에 진흥발전에 기여한 공로, 체육부문의 이용관(62)씨는 자립형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시 체육 위상을 드높인 공로로 선정됐다.

지역경제부문에 선정된 서정배(60) (주)에어로메스터 대표는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청년친화 강소기업에 선정되는 등 청년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현권



이용관



서정배

홍민희 전 경남도 가족지원과장 제24대 사천시 부시장으로 취임

홍민희(60) 전 경남도 가족지원과장이 지난해 12월 31일자로 제24대 사천시 부시장으로 취임했다.

홍 부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중심도시이면서 해양관광 중심도시인 사천시에서 근무하게 돼 무한한 영광인 동시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어디서나 누구나 잘사는 ‘인구 20만의 작지만 강한도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시장은 31일 오후 사천호국공원 충훈탑에서 참배를 한 뒤 송도군 사천시장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1963년 합천군 출신인 홍 부시장은 밀양대학원을 졸업했고, 1986년 합천군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1990년 경남도로 자리를 옮겨 보건행정과 공공보건담당, 식품의약과 식품의약과장, 서민복지노인정책과장 등을 거쳐 복지보건국장 직무대리(2016년 7월), 산청군 부군수(2017년 7월),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고위정책과장, 2018년 1월), 농업기술원 총무과장(2019년 1월), 가족지원과장(2020년 1월) 등으로 재직했다.



홍민희 부시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2021년 핵심 과제는?



사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박태정)은 사천시 관광발전과 시민복지를 위한 내년도 사업계획 설계와 함께 역점사업을 발표했다.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최우선으로 하고 어려운 경제 상황타개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사천시 발전을 선도할 최고의 조직과 인재를 확보하는 '경영기획팀'

△코로나19를 대비한 경영전략과 사회적 가치 실현 14명으로 구성된 '방역봉사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공단 시설과 관내 다중이용시설 방역에 앞장서고 '주민참여예산제'에 전문가(세무, 회계 등)의 참여를 유도해 재무구조 선진화와 재정의 투명성을 높인다.

△역점사업으로는 신규 시설물의 차질 없는 운영과 효율적인 인력구성

2021년 신규 수탁되는 누리원(화장장, 장례식

장)과 음식물바이오가스화 사업의 TF팀을 구성하여 관리운영 준비에 철저를 기한다. 직원역량 강화를 위한 순환보직 실시, 양성평등 문화 정착, 기술직렬(건축, 토목직 등) 채용으로 용역비 절감 등 선진화된 인사시스템운영으로 공단의 경쟁력을 제고한다.

☑ 사회적 가치 실현과 소통을 통한

공단 브랜드 이미지 강화 '홍보마케팅팀'

△단체 관광객 유치활동 및 광역 관광벨트 추진 케이블카의 지속적인 탑승객 확보를 위해 현장에

서 직접 듣고 소통하며 국내 관광자원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인접지역(남해, 고성, 진주 등)과 업무협약 등을 추진하여 홍보마케팅을 강화한다.

△역점사업으로는 신설 관광지 연계 홍보와 온라인 바이럴 마케팅 추진

2021년 완공 예정인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 사천 케이블카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패키지 테마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 비대면 홍보마케팅을 위해 유명 인플루언서(유튜버)와 SNS 서포터즈 등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하고 ‘프로슈머’를 생산을 통한 2차 홍보효과를 기대한다.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의 환경파트너 ‘하수처리시설팀’

△공공서비스 강화 및 노후 시설물 개선

환경기초시설 내 편의시설(테니스장, 시청각실)과 생태공원을 지역주민에게 개방 이용토록 홍보하고 노후 시설물 개선 작업으로 환경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역점사업으로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 등 운영 비용역비 절감

사천바다케이블카 비점오염원처리시설의 자체운영, 연내 위험성평가 우수사업장 인정, 관내 가축농가 감소로 인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가동 축소 등 자체운영과 용역비 절감으로 총 2억3천700만원의 예산절감을 기대한다.

국내최초! 바다와 섬, 산을 잇는

사천바다케이블카의 ‘케이블카운영팀’

△ 경영 효율성 향상과 고객 맞춤형 시설 확충

질병, 지진, 해일 등 다양한 상황에 대한 운영 매뉴얼을 구축하고 재해·재난사고 대응력을 강화하

며 시설들물들의 친환경 운영을 위해 노력한다.

△역점사업으로는 안정적인 야간운행과 제조사와의 업무네트워크 강화

야간운행의 상시 실시에 있어 안전과 운영의 안정성을 확립해 고객 만족도를 향상시킨다. 또한 제조사 원격지원 서비스(Tele-service) 계약을 체결하여 실시간 시스템 점검은 물론 기계 오류 시 신속한 점검과 기술지원을 받는다.

즐거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민의 건강파트너 ‘체육시설팀’

△노후시설·기구 교체와 친환경 시설물 개선으로 안전성 강화

노후된 2층 관람석과 헬스기구(러닝머신, 근력강화기 등)를 교체하여 시민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보일러 급수라인과 응축수탱크 교체, 태양광 발전 시스템을 설치해 에너지 사용 절감으로 쾌적한 시설 환경을 조성한다.

△역점사업으로는 이용객 우선 특별 서비스와 특강 프로그램 확대

시민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위해 노력하고 새벽 프로그램, 여름방학 특강 등 강습 프로그램을 세분화하여 이용 고객 확보와 만족도를 높인다.

박태정 이사장은 “장기화된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들고 지치는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모두가 함께 생활방역 수칙을 잘 준수한다면 내년에는 코로가가 없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리 공단 임직원들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앞장 설 것이며 새로운 도전과 혁신을 통해 2021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고려현종 부자 상봉길
사천의 걷기 좋은 길



코로나19로 생활패턴이 달라진 요즘에는 외부인을 만나지 않으면서 조용히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힐링 공간이 필요하다. 갑갑한 마음도 날려버리고 오붓하게 즐기기 위해 부자상봉길을 찾아보자.

사천시가 전북 전주시와 함께 '풍패지향(豊沛之郷·왕의 고향)'으로 불리는 데는 아버지와 아들의 애뜻한 사연이 있었기 때문이다.

사천시가 스토리텔링을 하는 이 길에서 우리 고장 역사도 알아보고 몸과 마음도 편안하게 쉬었다 오자.

고려 현종의 아버지인 육(郁)은 왕건의 여덟 번째 아들로 지금의 사남면 능화마을 부근에 귀양 왔다가 죽었는데, 두 살 배기 아들 순(詢)을 4년여 동안 가까이 두고 길렀다. 죄인은 귀양지에서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었으므로 아들을 10여km 떨어진 정동면 대산마을 배방사에서 길렀다. 이 때문에 육은 아침에 아들을 만나기 위해 고개를 넘었다가 날이 저물면 돌아왔는데 돌아올 때는 이 고개에서 아들이 있는 배방사쪽을 돌아보았다 하여 고개 이름을 돌아볼 고(顧), 아들 자(子), 고자봉(顧子峰)이라 했다.

이 부자상봉길은 외길로 돼 있어 일주한 뒤 출발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하루해를 꼬박 보낼 각오를 하고 출발해야 한다. 사남면이나 정동면 어느 쪽에서 출발해도 상관없으나 걷고 나서 출발지까지 돌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 사남면 능화마을에서 육의 묘소 터와 고자정~고자실~정동면 대산마을~배방



사지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코스가 있다. 정동면에서 시작한다면 자동차로 고자실인 학촌마을까지 갔다가 여기서 고자정~묘소 터~능화마을을 돌아 고자실로 온 뒤 이번에는 승용차로 대산마을까지 이동했다가 대산마을에서 배방사 터까지 걸어갔다 돌아오는 코스도 있다.

능화마을에서 묘소 터 입구까지 10분이면 닿는다. 안내판에서 묘소 터까지 200여m는 돌계단이 가파르지만 주변의 편백나무가 하늘을 가릴 듯 솟아 있어 기분을 상쾌하게 한다. 정자와 포토존이 있는 고자봉에서 잠깐 쉬었다가 고자실까지의 임도 3km가량은 힐링을하기에 충분하다.

울창한 나무 사이로 잘 정비된 길은 사람의 발길을 찾기 힘들 정도로 조용해 고향을 질러봐도 좋고 노래를 흥얼거리도 그만이다. 그러다가 아들을 만나러 가는 아버지 육의 마음이 스칠 때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고자실에서 배방사 입구인 대산마을까지 농로를 이용했다가 배방사가 있는 대산마을 뱅잇골까지는 좁은 옛길 그대로여서 잘 살펴야 한다.

배방사가 있었다는 터는 그 옛날의 영화를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넓어 보였으나 지금은 폐허로 남아있어 절터임을 짐작하기도 쉽지 않다.



어때요? 항공산업 28탄

☞ 관내 동향

● 항공제조산업 기반 유지 위해 42억 예산투입

- 사천시가 항공산업 기반 유지를 위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추진
- 시는 우선 보잉B737 Max의 운항 중단, 민항기 제작수요 급감과 항공기 운항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항공기업 회복을 위해 42억 예산 투입
- 항공기 복합재 부품 분석 시스템 구축에 16억, 항공우주산업 부품업체 지원에 6억, 항공기업 글로벌 마케팅 지원에 3억 등 9개 사업에 예산 투입 계획 임.
- 또한 항공제조산업 장기 유급휴가자 6,900여명을 대상으로 한 지역특화형 긴급직업훈련 시범사업에 6억 원을 투입하는 등 항공부품업체의 고용 유지를 위한 지원
- 송도군 사천시장은 “국가산단 조기 분양을 위한 용자, 마케팅 전략 수립과 함께 송포일반산업단지 조성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하는 등 올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할 확실한 앵커도시로 만들 것”이라고 밝힘

● KAI, 완성형 항공기 체계통합 계약 체결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방과학연구소와 12월 31일 Link-K(완성형) 항공기 체계통합 계약을 체결, 계약금액은 1,400억 원 규모며 납품은 2024년 11월 29일까지임
- Link-K(완성형)는 한국군이 현재 수행 중인 육해공 합동작전에 최적화하여 다양한 무기체계를 지상·해상·공중 합동전력 간 실시간으로 전술정보 및 상황인식을 공유하기 위한 운용체계
- KAI는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으로 개발 중인 링크K(완성형) 단말기를 공중통제기(KA-1), 소형무장헬기(LAH) 각 2대에 체계통합을 하며, 링크K(완성형) 기능·성능 확인을 위해 개발시험·운용시험평가 지원 및 항공기 개조 분야에 대한 종합군수지원 요소 개발 업무를 수행

공중통제기(KA-1)



- 길이 : 10.26m
- 날개 폭 : 10.60m
- 높이 : 3.67m
- 자체중량 : 2,040kg
- 최대속도 : 500km/h
- 항속거리 : 1,688km
- 실용고도 : 11,580m

소형무장헬기(LAH)



- 전장 : 동체(12.71m)
날개 포함(14.5m)
- 전폭 : 3.87m
- 전고 : 4.415m
- 순항속도 : 278km/h
- 최대속도 : 324km/h
- 항속거리 : 857km

● KAMES 제주항공 항공기 6대 정비계약, 새해 첫 수주

- 한국항공서비스(KAMES)가 제주항공과의 계약으로 새해 첫 정비물량수주
- KAMES는 지난 1월 6일 제주항공과 B737-800 항공기 6대에 대한 정비계약을 체결, KAMES는 아울러 티웨이항공과도 동일한 기종의 추가 수주를 협의



- KAMES는 지난해 매출기준 전년 대비 238% 성장, 지난 2018년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한 바, 올해는 수리온 3대 정비 등을 기점으로 총 75대 정비를 맡을 예정

도내 동향

● 경남테크노파크, 한·중 항공 온라인 상담회 성과

-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는 KOTRA 중국시안무역관(관장 김준기)과 공동으로 '2020 한중 항공산업 협력 포럼'을 온라인으로 개최해 총 24건, 4315만 달러의 수출상담 성과
- 상담회에 참가한 씨엔리(주) 해외영업담당 경병순 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항공시장 공급망이 바뀔 것에 대비해 최근 경남TP에서 주관한 해외 마케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고 있고 국가별 BtoB 미팅이 새로운 시장발굴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밝힘
- 경남TP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 상담회를 통해 지난해 2월 '2020 경남항공산업 타깃 마케팅'을 시작으로 7개 행사에서 전체 5억 9500만 달러의 수출 상담 성과를 올림

국내 동향

● 코로나 직격탄에 작년 항공기 29대 줄었다

-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항공사들이 지난해 항공기를 전년대비 29대(약 7%) 줄임
- 1월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국내 항공사 9곳이 보유한 항공기는 383대로, 지난 2019년 총 412대에서 약 7%(29대) 감소한 수치
- 대한항공은 지난해 159대로 전년보다 10대가 줄었으며, 같은 기간 아시아나 항공도 86대에서 82대로 4대 줄어들
- 항공기는 운항을 하지 않아도 정기적으로 고정비용이 들기 때문에 코로나19 종식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황에서 당장 비용을 줄이려는 조치로 풀이 됨

● 항공업계,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기대보다 저조한 흥행

- 국내 항공업계가 선보인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상품이 기대보다 저조한 성과를 냄
- 1월 10일 업계에 따르면 12월 12일~1월 2일 국제 관광비행 1차 운항 기간에 16편이 운항, 당초 26편이 운항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항공사가 운항을 취소하면서 운항편이 절반가량 줄어들
- 업계에서는 탑승률이 70%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지만 1차 운항 기간 평균 탑승률은 49%, 총 3104석이 공급됐으나 1520명만 탑승
- 지난달 국내 코로나19 재확산으로 방역 지침이 강화되면서 관광비행 공급과 수요가 모두 계획보다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임

서부노인복지회관 언제 완공되나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날로 다양해지는 복지서비스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건립되고 있는 사천시 서부노인복지회관. 언제쯤 만날 수 있을까?

사천시 곤양면 서정리 998-1 일원에 건립 중인 서부노인복지회관은 올해 12월이면 준공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서부노인복지회관은 1층은 필로티 층으로 주차장 및 주출입구가 설치되고, 2층은 프로그램실 및 120석 규모의 식당이 설치된다. 3층은 180석 규모의 다목적 강당 및 탁구장, 당구장, 요가 및 에어로빅을 할 수 있는 실 등이 설치되며, 옥상은 전기·기계실 및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다.

연면적 1,710.1㎡, 지상 3층 건물을 증축하고, 추후 기존건물의 리모델링 공사도 추진한다. 서부노인복지회관 건립이 완료되면 노인들에게 교양, 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각종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하여 급증하는 노인의 복지수요를 지원하고 나아가 사회전반의 행복지수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모두 3개 권역별로 노인복지회관이 각각 건립된다고 하는데, 서부권은 곤양면, 동부권은 사천읍, 남부권은 선구동에 건립된다.



길이름 따라 떠나는 사천 이야기

35번째
이야기

무고(舞鼓)길

사천시에는 많은 도로명이 있습니다.
각각의 도로명마다 역사적 의미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무고리는 본래 곤양군 서포면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원동, 평촌 등을 병합하여 조선시대 무기 창고가 있었다고 하여 무고리라 해서 사천군 서포면에 편입되었다가 1983년 4월 1일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곤양면에 편입되었고 무고와 상평 2개 마을로 구성되었다.

곤양의 산세가 천군만마를 거느릴 대천자가 나올 곳인데 천자가 세력을 발휘하기 위하여 필요한 무기를 만들어 보관하는 곳이라는 뜻이다.

또 실제로 조선시대에는 무기창고가 무고에 있었다고 한다. 일제 강점기 일제는 힘과 권력이 나오는 무기창고를 북치고 춤추며 놀기나 하는 무고(舞鼓)로 바꾸어 버렸다.

웅대한 민족혼이 흐르는 길지(吉地)를 먹고 노는 행락지로 부르게 말장난을 함으로써 민족정기를 나약하게 하려고 하였다.(사천시 지명지 참조)

도로명은 이러한 역사성의 의미를 담아 “무고길”로 하였다.

사천 이야기를 담은 사자성어

봉수상망(烽燧相望)

‘변방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사변을 알리는 신호’

봉수상망(烽燧相望)은 변방에서 발생하는 전쟁이나 사변을 알리는 신호로 봉수대(烽燧臺)의 불꽃이나 연기를 일정한 거리의 초소에서 서로 바라보고 즉각 대비하는 연락망이다. 봉수(烽燧)의 역사는 약 3천년 전부터 사용된 기록이 있다. 중국의 주(周)나라 후기 전국시대에 겸애설(兼愛說)을 주장한 묵자(墨翟)의 어록 《묵자(墨子)》라는 책의 호령(號令)편에는 “성 위에서 봉수(烽燧)를 서로 바라보았는데 낮이면 봉화(烽火)를 들고, 밤이면 횃불을 들었다.[烽燧相望. 晝則舉烽, 夜則舉火.]”라고 말한 기록이 있다. 봉수상망(烽燧相望)의 봉(烽)은 낮에는 연기를 올려 적의 침입을 알리고, 수(燧)는 밤이면 불을 올려 사변을 알리는 신호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봉(烽)과 수(燧)의 쓰임은 이와 반대로 설명되기도 한다. 그러나 봉수(烽燧)가 사변의 발생을 알리는 신호역할로 쓰인 것은 다를 바가 없다.

봉수상망(烽燧相望)!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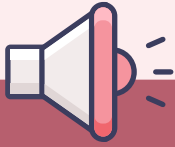
오늘날과 같은 통신망이 갖추어지지 못했던 옛 시절, 봉수(烽燧)보다 빠른 연락체계는 없었다. 일정한 거리의 초소에서 주둔하는 병사가 봉수(烽燧)를 보는 순간 바로 자신이 주둔한 곳의 봉수(烽燧)를 올려 일순간에 전국으로 비상 연락을 취할 수 있었다. 이것은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아주 원시적인 방법이지만, 인간의 지혜가 가장 극

치를 이룬 것으로 오늘날에도 선조들의 비상연락방법을 배워 두어야 할 지혜 중에 하나다. 적군이 만일에 전기와 전파시설을 먼저 차단하고 침략해 온다면 무엇으로 서로 연락을 취할 차선책이 대비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그런데 역사 유적을 답사하다가 보면, 봉수(烽燧)는 대부분 그 옛 터였거나 그곳이 봉수대(烽燧臺)였다는 상징적인 돌무더기만 남아 있기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천시에는 유일하게 봉수대(烽燧臺) 원형이 그대로 복원되어 있는 곳이 있다. 사천시 바다 케이블카는 케이블카를 타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구경한 후 돌아오면 다시 각산으로 올라갔다가 승강장으로 돌아오도록 돼 있다. 이 각산 승강장에 내려서 약 10분정도 걸어올라 산 등성이를 돌다가 보면, 해발 408m의 각산 정상에 도착한다. 그곳에서 바다의 여러 섬 전체를 조망할 수 있고, 바로 그곳에 각산 봉수대(경상남도의 문화재자료 제96호)가 있다. 자녀들과 함께 바다케이블카도 타고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구경하고 봉수대의 역사유적도 볼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보다 더한 일석삼조(一石三鳥)의 관광지이자 역사탐방지라 말하고 싶다.

이 갑 규(李甲圭)

한국국학진흥원 교수·한학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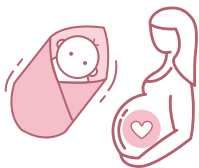




시정 알림 마당

생애 초기 건강관리 서비스

- **지원대상 :**
사천시 거주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
- **지원내용 :**
전문인력(간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 상담, 영아 발달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또는 전화 신청
- **문의 :**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07,3508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우리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면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이는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한 촬영사진은 증거자료로 인정되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는 개인 스마트폰으로 행정안전부에서 만든 '안전신문고' 앱을 다운받은 후에 ▲소화전(5m 이내) ▲교차로 모퉁이(5m 이내) ▲버스정류소(10m 이내) ▲횡단보도 ▲인도(보도) ▲어린이보호구역 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등에 주·정차 차량을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여 1분 간격으로 촬영할 사진을 2장 이상 올리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이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된 사진으로 사진촬영 후 3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 주·정차는 내 이웃을 불편하게 하고 긴급차량 출동 등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차질서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문의 : 민원교통과(교통지도팀) ☎831-3367



'민원서류 한 곳에서 발급' 통합민원창구 운영

각종 민원서류를 새해부터는 시청 민원실 한 창구에서 한 번에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까지는 시청 민원실에 와서 여러 민원창구를 찾아다니며 발급신청서를 따로 작성하고 신분 증명까지 거치는 등 민원서류 발급하기까지 시간소요와 번거로움 등 불편을 느껴왔다.

이에 사천시는 관계부서장 의견수렴과 담당자 회의 등을 거쳐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서(본인서명확인서) ▲토지(임야)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어디서나 민원 등을 일괄 처리할 수 있는 표준 신청서 서식을 제작하는 등 통합민원창구의 원활한 운영을 준비해왔으며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민원에 따른 부서가 달라서 부서별로 민원서류를 발급해 왔는데 이를 과감하게 정리하여 통합민원창구를 운영하게 되었다. 앞으로도 시민들의 불편한 부분은 수시로 개선하여 시민만족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사천시,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접수

사천시가 2월 10일까지 귀농인과 재촌비농업인을 대상으로 2021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1955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65세 이하의 세대주로 전입일 기준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귀농 관련 영농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다.

신청 희망자는 내달 10일까지 사천시 농축산과 인력육성팀을 방문해 사업신청서,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및 기타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3억원 한도, 주택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원 한도로 융자 지원하는데, 대출금리는 연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방식이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은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다 같이 걷자, 사천걸음” 참여자 모집

움직이는 발걸음, 건강의 첫걸음! 사천시민의 일상 속 걷기실천을 위한 걷기 커뮤니티를 운영한다.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워크온(WalkOn) 설치 및 가입을 통해 “다 같이 걷자, 사천걸음”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을 들고 걷기만 하면 된다. 스마트폰 내장 센서를 통해 실시간 걸음 측정이 가능하며 가입자 간 걸음 비교로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기간별 걸음수 및 소모 칼로리 등 개인 분석도 가능하다.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운동, 걷기!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 보자”

●문의 :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48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 신청 안내



- 대 상 : 개인(개인사업자) ※ 법인은 제외
 - 세 목 : 지방세 정기분·수시분·연납분
 - 지방세(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 지방세외수입(과태료 등)
 - 간편결제사 : 카카오페이, 네이버, 페이코 앱, 15개 은행 앱
총 18개 앱 중 1개만 선택(중복선택 불가)
 - 이용방법 : 간편결제사 앱에서 지방세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시, 다음달부터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수령
 - 이용혜택 : 세액공제 혜택(고지서 1장당 150원)
 - 설치·신청문의 : 각 앱사별 고객센터
 - 부과·고지문의 : 사천시 세무과(☎831-2860)
- ※ 간편결제사 앱으로 고지서 전자송달 신청·해지 및 열람·납부 가능

가임기여성 및 임신부 풍진검사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가임기여성(15~49) 및 12주 이내 임신부
- 지원내용 : 풍진항체검사 무료 지원(1인당 29,000원)
-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문 의 :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3515

새해 맞이 금연 본능 깨우기!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함께



- 대상 : 금연 희망자
 - 일시 : 연중(무료) 09:00~18:00
 - 장소 : 사천시보건소 금연클리닉(월~금)
 - 내용 : 금연상담 및 교육, 니코틴보조제 및 행동강화 물품 지원, CO측정 및 체내 니코틴검사, 6개월 금연성공자 기념품 제공
- ※ 사업장, 군부대, 단체 등 금연희망자 5인 이상 시 찾아가는 이동금연클리닉 운영 및 비대면 금연클리닉 병행 가능
- 문의 :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16, 3518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가임기여성 엽산제 무료 지원

- 지원대상 : 임신을 준비하는 사천시 거주 신혼부부·예비부부 및 가임기여성
 - 지원내용
 - 신혼·예비부부: 부부 각각 3개월분 엽산제 지원
 - 가임기여성: 3개월분 엽산제 지원 (출산순위 당 1회 지원)
 - 신청방법 : 신분증 및 구비서류 지참하여 보건소 방문
- ※ 구비서류
- 신혼·예비부부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청첩장
 - 가임기여성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문의 : 사천시보건소 건강증진과
☎055)831-3527, 3515



스마트 특특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대상자 모집

	내용
모집대상 및 인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을 소지하고 계신 65세 이상 어르신 (아이폰 사용자, 노인장기요양 등급자 제외) • 소득수준, 질병유무 관계없음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폰 건강관리 어플리케이션 활용 • 스마트밴드, 체중계, 블루투스 혈압계, 혈당계, AI 생활스피커 연동하여 비대면 건강관리 ※ 제공되는 기기는 사업 참여 중단/종료 시 반납

- 문의 : 사천시보건소 방문보건팀
☎055)831-3593, 3578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천시(시장 송도근)는 오는 18일부터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시범사업'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천시 거주자이면서 신청일 현재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산모이며 친환경농산물 쇼핑몰(<http://www.ecoemall.com>) 또는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1년간 48만원(자부담 20%)의 친환경 농산물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위궤양이 위암을 부른다?

50세 남성 B씨는 몇 달 전부터 속쓰림이 심하고 식사를 하고 나면 속이 타는 듯한 느낌에 괴롭다. 그의 병명은 위궤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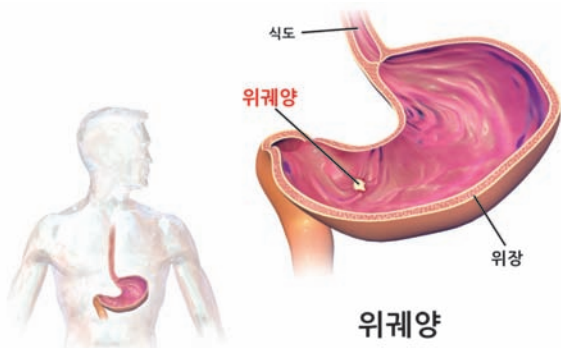
‘완치는 가능할까?’

‘위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닐까?’ 늘 걱정이다.

위궤양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의 감염, 진통제 복용, 흡연, 스트레스 등이 원인이 되어, 위장 점막이 부분적으로 움푹하게 패인 것을 말합니다. 특징적인 증상은 식사 후 몇 시간 이내 명치 통증, 속쓰림 등이 지속되며, 메스꺼움, 식욕저하, 오심, 구토 등이 있습니다.



위궤양이 의심된다면?



만약 이런 증상으로 위궤양이 의심된다면 위내시경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내시경을 통해 위궤양으로 판단된다면 위암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조직검사를 실시하고, 치료는 약물과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약물은 제산제, 위산분비억제제 등이 있고,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에는 제균 치료를 시도할 수 있으며, 수술은 위궤양의 악화로 천공이 되었을 때, 지속해서 재발하는 경우 진행하게 됩니다.



위궤양이 위암으로?

위궤양으로 진단받은 환자는 ‘혹시 위암으로 진행되는 건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궤양이 반드시 위암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걱정 할 필요는 없습니다.

위염과 위궤양이 만성적으로 반복한다면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내시경 결과가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으로 나온 경우 그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따라서 위궤양으로 진단받았다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주기적으로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완치가 가능할까?

양성 위궤양이라면 완치는 가능합니다.

하지만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경우 제균 치료를 하지 않으면 50~60%에서 재발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검사를 통해 균이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생활습관에 문제가 없는지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트레스, 담배가 주요 요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고 반드시 금연해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적절한 식사량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식사 시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술은 위산 분비를 자극할 뿐 아니라 도수가 높을 경우 직접 위 점막을 손상하므로 가능한 절제하고, 커피와 같은 카페인 함유 음료, 강한 향신료가 첨가된 음식, 아주 차거나 뜨거운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방과 주기적인 검사는 반드시 소화기 내과 전문의와 상담하셔야 합니다.

삼천포서울병원 소화기 세부내시경 전문의
부원장 서현웅



‘생명존중’ 필요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방송과 신문을 통해 살인사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입양한 아기를 학대해서 사망하게 한 양부모.
 자신의 자녀를 여행용 가방에 넣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게 한 의붓엄마.
 극심한 생활고로 온가족을 살해하고 동반자살을 한 가장.

이러한 생명경시 풍조는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는 듯 남녀노소, 빈부 격차 및 신분의 고하를 가리지 않고 더구나 전국 어디에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천에서도 별로 달갑지 않은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지난 1월 23일 신생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영아유기치사)로 30대 여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 여성은 신생아의 친모인데, 용현면의 한 아파트 단지 뒤편 산책로에 신생아를 내다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발견 당시 신생아는 심정지 상태로 낙엽에 가려져 있었으며 땀줄도 뚝뚝 흘리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이미 사망한 것으로 판정됐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이이라고 하더라도, 그리고 특별한 어떠한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 자식의 생명을 뺏을 수 있는 권한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생명경시 풍조와 함께 모성애가 땅에 떨어졌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경시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도덕적 빈곤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삼강오륜(三綱五倫)으로 대표되는 유교적 가치관이 급격히 붕괴되면서 이를 대체할 새로운 도덕 기준이 없는 실정입니다. 돈이 최상의 가치가 되고 부자로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된 사람들은 오로지 나만을 위한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지기 쉬울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직·간접적 살인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세상이 각박하고 살벌해지는 걸까요.

그것은 대부분 허욕 때문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면 자신을 망칩니다.

인간은 모두 식욕 물욕 성욕 등 기본적인 본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심정도’ 바른 마음 바른도리로 사는 것이 옳은 삶입니다. 우리 모두 이 길을 가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맙시다.





사천의 미래

소중한 아기탄생을 축하합니다



정등면



강나연 (20.12.17.)

이 세상에 태어난 걸
진심으로 사랑한다.
나연아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사랑한다♡

아빠 강명상♡엄마 최미련

정등면

박송이 (20.12.8.)

꽃님아,
아빠 엄마 딸로
태어나주셔서 고마워♡
사랑해

아빠 박성호♡엄마 김나리



정등면

김가운 (21.1.13.)

사랑하는 가운아,
건강하게 태어나주셔서
고마워♡

아빠 김경진♡엄마 한사랑



아기탄생을 축하하는 글을 보내주세요.
사천소식지에 게재 후, 개별 송부해드립니다.

- 대 상 : 사천 출생아 중 신청가구
- 내 용 : 아기에게 전하는 축하의 글
- 신청기간 : 아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방법 : 아기 출생신고 시 또는 별도 신청 가능
- 접 수 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 문의 : 사천시청 혁신법무담당관 인구정책팀 (☎831-2195)

